

【국 어】

1. 다음 밑줄 친 어휘가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내 친구는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해서 걱정이야.
- ② 운동을 많이 했더니 장단지가 멍쳐서 아프네.
- ③ 철수는 짜장면을 즐겨 먹어.
- ④ 영수가 칠판에 글을 개발새발 그려놓았어.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지V말라는V태는V가지V말아야지V왜V그런V곳에V간V거야?
- ② 너V만큼V나도V그V사람을V보고V싶어.
- ③ 그V일을V왜V해야V하는V지를V잘V모르겠어.
- ④ 나도V그곳에서V보다V이곳에서의V생활이V더V좋아.

3. 다음 밑줄 친 외래어의 표기가 올바르게 된 것은?

- ① 철수는 리더쉽이 뛰어난 학생이다.
- ② 철수는 거의 매달 비즈니스 문제로 중국에 간다.
- ③ 영화는 다음 주에 있을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열심이다.
- ④ 민수는 생일인 영수를 위해 케익을 준비했다.

4.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것은 사장님의 결제(決濟)를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② 이 선수가 앞으로 한국 신기록을 경신(更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③ 무명의 신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負傷)했습니다.
- ④ 저 사람이 헌법 소원(所願)을 낸 사람입니다.

5. 다음 중 가장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그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되어야 한다.
- ② 철수는 근거 없는 낭설에 휘말려 곤혹스러웠다.
- ③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 하길 바란다.
- ④ 영화는 철수와 싸운 뒤로 일체 대화를 하지 않는다.

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어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복합어는 다시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이하 생략)

- | | ㉠ | ㉡ | ㉢ |
|---|-----|-----|----|
| ① | 아버지 | 값어치 | 덮밥 |
| ② | 바가지 | 값어치 | 마중 |
| ③ | 아버지 | 곤잘 | 마중 |
| ④ | 바가지 | 곤잘 | 덮밥 |

7. 다음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장치를 양태(modality)라고 한다. 국어에서 양태 표현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우언적 구성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추측, 가능성, 지각’ 등 ‘인식 양태’와 ‘의도, 소망, 능력, 허가, 의무’ 등 ‘행위 양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야 한다.’의 ‘-어야 하-’는 행위 양태이다.
- ② ‘사람들이 많길래 그냥 돌아왔어.’의 ‘-길래’는 인식 양태이다.
- ③ ‘민주는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의 ‘-(으)ㄴ 수 있-’은 행위 양태이다.
- ④ ‘나는 내일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겠다.’의 ‘-겠-’은 인식 양태이다.

8.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철수가 학자가 되었다.
- ㉡ 저 가게가 신발이 값이 싸다.
- ㉢ 할아버지도 키가 큰 편에 속하신다.
- ㉣ 학회에서 새로운 논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 ① ㉠㉡ ② ㉡㉢ ③ ㉢㉣ ④ ㉠㉢㉣

9. ㉠, ㉡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이-’, ‘-히-’, ‘-리-’, ‘-기-’는 ㉠피동사를 만들기도 하고 ㉡사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피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내어진 인물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됨을 표현하고, 사동사로 만들어진 문장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함을 표현한다.

- ① ㉠: 시청에 태극기가 걸렸다.
- ② ㉠: 눈발이 하늘 위로 날렸다.
- ③ ㉡: 형은 힘차게 팽이를 돌렸다.
- ④ ㉡: 토끼가 사자에게 다리를 물렸다.

10. 다음의 중세국어 문장 중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은?

- ㉠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 ㉡ 므슴 차바눌 손소 둔너 밍그노닛가
- ㉢ 그디 이 은늘 날 송장애 쓰고 남거든 그디 가져서
- ㉣ 부터와 중과를 請히스보려 호녕다

-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통의 예(例)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중략]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 ① 원효의 해동종(海東宗)
- ② 세종의 훈민정음(訓民正音)
- ③ 조선의 고문파(古文派)
- ④ 신윤복의 풍속화(風俗畵)

12.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의 변화는 시서화(詩書畵)의 세계마저 영상 서사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책과 종이 그리고 독서의 종말을 예단하기도 합니다.
-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가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기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추할 여유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 ① 반열(班列):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 ② 예단(豫斷): 미리 짐작하여 판단함
- ③ 호도(糊塗): 경망스럽게 떠벌림
- ④ 반추(反芻):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함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벼락치기의 원동력,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종의 각성 효과이다. 마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뇌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시상 하부에서 신호를 보낸다. 시상 하부에서 보낸 신호는 교감 신경을 따라 부신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다. 이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또한 뇌가 각성, 즉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중략]

한 중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며칠 후 출제 문항을 조금씩 변형해 재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치를 과목은 사회와 미술이고 각각 시험지에 벼락치기 여부를 표시하게 했다. 시험 결과 양쪽 모두 조금씩 점수가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했다고 대답한 과목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과목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중략]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해마의 신경 세포 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고 한다. 어쩌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뇌 신경 세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 현대인들에게 신경 질병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 ① 벼락치기로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 ② 벼락치기는 장기 기억에 효과적이다.
- ③ 이 글의 핵심어는 ‘스트레스, 우울증, 기억력’이다.
- ④ 일상적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14. 다음 문장들을 이용하여 두괄식으로 한 단락을 구성한다면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다.
- ㉡ 독도를 당시 ‘우산도’라고 호칭한 것도 옛 우산국의 영토로서 본도(本島)를 ‘울릉도’로 호칭하게 되자 울릉도의 속도(屬島)인 독도에 ‘우산도’의 명칭이 옮겨 붙은 것이다.
- ㉢ 15세기의 “세종실록”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 ㉣ 울릉도의 영유 국가가 독도의 영유 국가가 된다.

- ① ㉠-㉡-㉢-㉣ ② ㉠-㉡-㉣-㉢
- ③ ㉢-㉡-㉠-㉣ ④ ㉢-㉠-㉡-㉣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저가>·<도술가>·<가시리> 모두 고려가요이다.
- ② 1910년대를 최남선과 이광수 2인 문단시대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 ③ 문학에서 개연성이란 현실 묘사(模寫)를 뜻한다.
- ④ 1920년대에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카프’ 단체가 결성되었다.

16.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의미가 가장 다른 하나는?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① ㉠ ② ㉡ ③ ㉢ ④ ㉣

17.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이 정말로 내게 빛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인가. 노인의 말처럼 그건 일테면 노망기가 분명했다. 그런 염치도 못 가릴 정도로 노인은 그렇게 늙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굳이 노인의 그런 노망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문제는 서로 간의 빛의 문제였다. 노인에 대해 빛이 없다는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했다. 염치가 없어져서건 노망을 해서건 노인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빛만 없으면 그만이었다.

빛이 있을 리 없지. 절대로! 글썽 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정면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질 않던가 말이다. [중략]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으세요? 이 옷장을 들여놓으니까 좁은 방이 더 비좁지 않아요.”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 오던 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중략]

나중에는 안 일이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마지막 밤을 아내에게 해 주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 ① ‘나’가 서술되었기에 1인칭 시점이다.
- ② ‘나’는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 어머니를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 ③ ‘나’와 아내를 보니, ‘초록은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
- ④ ‘나’는 ‘빛’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여 자식된 도리를 부정하려 애쓰고 있다.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鄭)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가 있었으니,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校正)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아홉 가지 유교 경전을 부연 설명하여 다시 저술한 책이 일만오천 권이었다. 천자(天子)가 그의 절의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諸侯)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東里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하게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마을의 둘레를 봉(封)해서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閭)’라고 정표(旌表)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중략]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誣)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18. 위의 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두 인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는?

< 보 기 >

동리자의 다섯 아들이 어미의 방에서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져서 여우 구멍이 생겼대,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대.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라고 하였다.

- ① 善男善女 ② 女必從夫
- ③ 表裏不同 ④ 匹夫匹婦

19. 밑줄은 호랑이가 북곽 선생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일종의 말장난이다.
- ② ‘언어유희, Pun’이라고 한다.
- ③ 건강부회(牽強附會)하는 북곽을 꾸짖는 말이다.
- ④ “유(誣)”의 뜻이 위의 글에 제시되어 있다.

20. 다음은 고전시가 작품의 일부분이다. 현대역 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둘하 노피곰 도드샤 →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② 꽃 도쿄 여름 하느니 →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 ③ 시절이 하 수상흐니 →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
- ④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혼자로구나